

미국 견제 나서는 ‘상하이 파이브’

중국·러시아 등 5개국, 美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선언문 발표

Bates Gill

교토(京都)기후협약 탈퇴, 탄도탄 요격 미사일(ABM)협정 폐기,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 강화 등 최근 미국 외교정책이 심상찮은 기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다자간 협력기구를 결성하려는 움직임들이 부각되고 있다. 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움직임 가운데 대단히 흥미롭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 중 하나가 ‘상하이 파이브’(上海五國)다. 조용하지만 꾸준히 회원국간 군사·경제·외교 협력관계를 다져온 ‘상하이 파이브’는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막강한 세력으로 위상을 다지려 한다.

‘상하이 파이브’는 중국·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러시아·타지키스탄으로 옛 소련 공화국들과 중국 간의 일련의 국경선 획정 및 무장해제 회담에서 출발했다. 이들 5개국은 1996년 상하이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매년 회담을 개최해왔다. 해가 거듭될수록 정상회담에서 작성된 공동선언문들은 통상·문화·군사·안보 문제에서 갈수록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일례로 2000년 7월 타지키스탄의 두산베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이들 5개국 간의 협력 정례화를 촉진할 ‘국가 조정자 회의’의 창설을 천명하는 선언문이 발표됐다. 공동선언문들은 또 회원국 국경선 안팎에서 벌어지는 국제분쟁에 대한 입장 표명에도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일례로 두산베 선언문은 회원국 내의 독립운동·테러·광신도 활동 등에 대한 공동 대처를 천명하고 있다. 특히 “‘인도주의’와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며 5개국의 독립·주권·영토·사회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부분이 눈길을 끈다. 중국의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은 지난해 정상회담중 가진 연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5개국의 국민적 단합과 주권 수호를 위해 상호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이 지역 안보를 약화시키는 모든 종류의 위협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하이 파이브’는 매년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외무장관은 이미 연례 회담을 갖고 있다). 또 각국 군대는 합동작전 및 합동훈련 실시, 평화유지 활동에 관한 정보교환, 회의를 비롯한 각종 상호교류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합의했다.

더욱이 두산베 공동선언에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암시한 부분이 있다. 유엔 안보리의 사전 승인 없이 국제 문제에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 사용을 공언하는 것을 반대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적 혹은 국지적 문제를 이용하려는 국가나 국가간 협력기구를 반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한편 두산베 공동선언은 보다 더 직접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정책에 대한 비판을 표명하기도 했다. 1972년 체결된 ABM협정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대만에서의 ‘블록에 기반한’(다시 말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위체제 구축을 반대한다고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상하이 파이브’는 곧이어 이 단체가 동맹이 아니며 특정한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확실히 이 단체는 내부적으로 동맹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이견을 많이 갖고 있다. 이 단체중 가장 큰 두 나라인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0년간 상당한 관계 개선을 공언해왔으나 실은 여전히 서로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적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 단체의 개별 회원국들은 인도·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의 탈리반 정권을 비롯한 다양한 이웃국가들과의 관계 등 여러 중요한 문제들과, 중앙아시아에 매장된 풍부한 에너지 및 기타 천연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상하이 파이브’에 새 회원국의 가입을 환영하는 듯 보이지만(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이란·인도 등이 관심을 표명했다), 다른 회원국이 끼어들면 내부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현재 ‘상하이 파이브’ 회담은 국경분쟁 해결, 신뢰구축 방안 도입, 테러·마약밀매 등 불법활동에 대한 공동대처 등 몇몇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 왔다. 그들은 또 뜻을 합쳐 이른바 미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점점 강도높은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이 파이브’가 그 이상을 성취하기란 훨씬 어려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파이브’는 미국을 제외한 안보체제를 구축하려는 세계적 경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에서 차기 ‘상하이 파이브’ 회담이 열리는 오는 7월 무렵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의 ‘전략적 제휴’를 총괄할 보다 공식적인 새 협정을 발표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상하이 파이브’도 일련의 강력한 협정들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고할 것이다. 바로 미국에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에서 러시아와 중국 같은 나라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대다. 주목할 만한 추세가 아닐 수 없다.

(필자는 브루킹스 연구소 동북아 정책센터 소장)